

일차진료 환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종교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을 원하는가?

박성배, 강문철, 이복기, 정수진, 강희철, 윤방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우리 나라 인구의 50.7%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종교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분야에서 의학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앞으로는 외국에서와 같이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 되는 바이나, 그에 앞서 환자에게 종교관련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 방법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종교적 질문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 좀더 나은 접근법을 제시하여 앞으로 건강과 종교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초석이 되고자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8월, 서울시에 위치한 2곳의 3차 병원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92명과 1차 병원 가정의학과 2곳의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85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진료 기관의 종류, 종교의 종류, 종교의 중요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X^2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전체적으로 환자의 종교에 대해서 묻는 것에 관하여 비호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한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의 종교적 질문에는 호의적인 의견의 비율이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1, 3차 진료군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과 기독교군에서는 종교적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유의하게 호의적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종교와 건강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의 기초자료가 되어, 외국의 경우와 같이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 나라환자들에게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 좀더 대규모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중심단어: 종교, 건강, 질문, 설문연구